

총평

먼저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단답형 지식형 문제보다 비문학 독해와 화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학생들에게는 낯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난도가 크게 높지는 않아서 평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해 문제와 화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확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②

㉠의 ‘크다’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란 뜻을 갖는 동사이고,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란 뜻의 ‘나다’는 ‘난다, 나는’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 ‘성격이 다른’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용언이며, 현재형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 명사 ‘말’을 수식하는 ‘허튼’은 ‘쓸데없이 헛거나 막된’이라는 뜻의 관형사이다.

㉤의 ‘아니다’는 보어 ‘사랑이’ 앞에 오는 형용사이다.

2.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한 긍정 평서문이며, 찬성과 반대의 대립인 ‘유지해야 한다.’와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쟁점이 ‘징병제도의 유지’ 하나이며,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 없다.

② ‘정보통신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는 부정을 드러내는 서술어 ‘없다’를 사용하였다.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야만적인’이라는 단어는 ‘두발 제한 폐지’를 긍정하는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다.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 개혁’이라는 두 개의 쟁점이 드러나 있다.

3. ③

지문에,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에서 아버지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무대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① 지문에,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에서 알 수 있다.

② 지문에,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지문에,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4. ④

수빈의 두 대답에서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①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라고 수빈이가 정아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것으로 보아 정아의 말에 주의 집중하고 있다.

②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라는 수빈의 말을 통해, 수빈이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③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라는 수빈의 말을 통해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5. ①

‘부엌일’은 합성어이고, 앞말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으로 바뀐다.(교체) 그리고 뒷말은 모음 ‘ㅣ’로 시작하기 때문에 ‘ㄴ’첨가(첨가)가 일어나 [부엌닐]이 되고, 비음화(교체)되어 [부엌닐]로 발음한다.

6. ④

이 토론의 논제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인데 반대 측은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라고 논제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 ④

‘골계(滑稽)’는 대조적 개념인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에서 ‘있어야 할 것’을 외면하고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는 미적 범주이다. 따라서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다.

‘풍자(諷刺)’와 ‘해학(諧謔)’은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이 풍자가 되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해학이다.

8. ①

<보기>에서 기도가 뉴스로 변화한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의 앞 문장에 ‘교회의 시간 규범’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는 ㉠에 들어가야 한다.

9. ④

제시된 부분은 화자가 이웃에게 소를 빌리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부분이다. 화자 자신의 ‘풍채 적은 형용(모습)’을 보고 ‘개’가 짖는다고 하였으니, 개마저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한을 돈우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수심을 더 깊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②

작품에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에서 알 수 있다.

전전불매(輾轉不寐):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

① 금슬지락(琴瑟之樂):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 = 금슬상화(琴瑟相和))

③ 금의야행(錦衣夜行):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으로 (1) 아무 보람 없는 행동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2) 입신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이르는 말 (3)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이르는 말

④ 맥수지탄(麥秀之嘆):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함’이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

11. ③

주체인 어머니를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였고, 객체인 아주머니를 부사격 조사 ‘-께’와 높임 어휘 ‘드리다’를 통해 높였다. 청자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라는 어미를 사용하였다.

① 상대 높임이 쓰이지 않았다.

② 주체 높임이 쓰이지 않았다.

④ 객체 높임이 쓰이지 않았다.

12. ②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만든다고 하였기 때문에 화자는 고전적인 질서를 비판적으로 보며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라’라는 명령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③ ‘국경’, ‘탐’, ‘어용학의 울타리’ 등은 가래로 밀어 바다로 몰아넣을 부정적 대상이고, ‘날새’, ‘햇빛’ 등은 흐르게 할 긍정적 대상이다.

④ 제목의 ‘쟁기꾼’과 시 본문의 ‘가래 밀어’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것들을 청산하기 위한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13. ③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의 논평)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평가하거나,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사건의 서술에서 벗어나 도구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은 문물을 떠올리며 한탄하는 춘향이의 대사이므로 서술자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14. ④

제시된 상황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는 새끼를 가진 듯한 ‘신둥이개’가 도망갈 수 있도록 빈틈을 만들어 주었다. ‘동장네 절가’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은 빈틈을 낸 ‘간난이 할아버지’를 힐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틀리다.

15.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는 내용은 있지만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

① (가)에서 찬성공이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냐고 꾸짖은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는 점에서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소설을 들으려 돈을 던졌다는 내용을 통해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

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③

지문에, ‘종래의 신을 이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① 첫째 문단에서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② 둘째 문단에서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예시로 들며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과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17. ①

(나)의 마지막 문장에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즉 과학적 연구는 경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실용적 기술 개발은 이런 과학적 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믿는다는 말이 된다.

18. ④

마지막 줄에서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으므로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라는 내용은 틀린 말이다.

① 첫째 문단에서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는 부분을 통해 피자가 배달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의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자장면과 피자는 안성맞춤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19. ②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여유)을 뜻하는 말이고, ‘휴가’는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을 뜻하는 말이다. ‘말미’와 ‘휴가’ 모두 유의어로 공존하며 쓰이는 말이다.

20. ③

(다)는 ‘디디티’가 지닌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후 실제로 ‘디디티’ 사용이 금지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디디티’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